

지난 2003년부터 글쓰기교실에서 주관한 〈학위 논문 작성법 워크숍〉은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인문·사회 계열 대학원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학위 논문 작성의 일반 원칙과 윤리, 학문 분야별 연구 방법 등에 관한 강연과 논문 사례의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10월 28일에 열린 〈사회과학 논문 작성법〉에서는 글쓰기교실의 김태환 선임연구원이 ‘논문 작성법 일반’에 대해, 교육학과의 조용환 교수가 ‘질적 연구 논문 작성법’에 대해, 언론정보학과의 양승목 교수가 ‘양적 연구 논문 작성법’에 대해 강연하였다. 〈인문학 논문 작성법〉에서는 역시 김태환 선임연구원의 강연(〈논문 작성법 일반〉)에 이어 언어학, 문학, 역사학 논문작성법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언어학 분야에서는 강창우(독어독문학과) 교수가, 문학 분야에서는 조철원(영어영문학과) 교수가, 역사학에서는 정용우(국사학과) 교수가 맡아 강연해 주었다. 워크숍에 참석한 사회과학대학의 송윤진(외교학과) 씨와 인문대학의 박연옥(중어중문학과) 씨가 자신의 학문 분야에 속한 프로그램을 듣고 참관 후기를 써 주었다. 한창 학위 논문을 준비 중인 참가자들을 통해서 〈학위 논문 작성법 워크숍〉에 요구되는 것을 알아보고, 향후 워크숍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 희망의 ‘콩나무’를 발견하게 해 준 워크숍

송 윤 진\*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 윤동주, 「별 해는 밤」 중에서 -

요사이 교정(校庭)은 이면적으로는 논문과의 막바지 싸름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논문 제출 예정자들의 학구열로 가득한 듯하고 외면적으로는 각 학과마다 이미 시작되었거나 예정된 일련의 논문 발표회들로 부산한 듯 보인다. 석사과정의 학도들에겐 졸업을, 박사과정의 학도들에게는 전문학자가

되기 위한 최종 면허시험을 의미하게 될 이 발표회에서 많은 학도들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희색만면(喜色滿面)할 것이지만 일부 발표자들은 애석만면(哀色滿面)할지 모른다. 이 풍경은 전문학자를 꿈꾸는 필자에게도 조만간 맞이해야 할 상황일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지난 10월 28일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박사과정

과 29일 양일에 걸쳐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에서 주최한 〈인문·사회 계열 대학원생을 위한 학위 논문 작성법 워크숍〉은 언젠가 맞이해야 할 논문발표회라는 풍경에서 필자가 희색만면할 수 있는 기본 지침들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필자에겐 너무나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지난해 가을 학기에 박사과정을 시작한 필자는 입학하기 직전인 그 해 봄 무렵부터 박사논문을 어떠한 주제로 어떻게 쓸 것이지를 놓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다. 늦게 시작한 공부에 대한 만회 욕구와 강박 관념 탓이었는지 입학도 하기 전에 논문 주제에 대해 나름의 단상(斷想)들을 메모 카드에 적어 놓기도 하고 심지어 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하루에 15분씩 학위논문 쓰기(Writing Your Dissertation in Fifteen Minutes a Day)』\*\*와 같은 매력적인 제목을 달고 있는 책들을 여러 권 구해 읽어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위논문에 대한 관심과 고민은 역설적으로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필자의 의식에서 멀어졌다. 과중한(?) 코스워크와 핵심교양 조교 업무에 따른 부담 탓이었는지 논문 쓰기는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논문 쓰는 문제에 대해 슬슬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는 교수님의 말씀은 논문 쓰는 일이 나의 일임을 필자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었고 지난 6월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부터 그간 논문 쓰기와 관



'양적 연구 논문 작성법'을 강연하고 있는 언론정보학과의 양승복 교수.

련하여 수많은 시행착오와 번민(煩悶)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차에 10월 중순경 강의실 앞 복도 게시판에서 발견하게 된 워크숍 알림글은 필자에겐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해주었다.

개인적으로 학부와 석사과정에서 인문학(역사와 지역학)을 전공하였고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밟으면서 학제 간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터라 이를 예 걸친 워크숍 프로그램을 모두 참관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선 현재 사회과학(외교학)을 전공하는 학도로서 주로 첫날에 있었던 〈사회과학 논문 작성법 워크숍〉을 참관하면서 가졌던 인상과 그것에 대한 평언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사회과학 논문 작성법 워크숍〉은 총 세 시간에 걸쳐 세 가지 주제의 강연들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첫 시간은 김태환 박사님께서 '논문 작성법 일

\*\* Joan Bolker(1998), *Writing Your Dissertation in Fifteen Minutes a Day: A Guide to Starting, Revising, and Finishing Your Doctoral Thesis*,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반'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셨는데 논문의 목표와 대상, 논문의 구조 만들기, 자료 수집과 검토, 인용과 풀어쓰기, 좋은 문장의 요건 등으로 구성된 강연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고 있던 논문 작성법 일반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참석자 모두가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하나의 건물을 완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골격임을 건축주 스스로 알면서도 무시하여 문제를 야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논문을 단단하게 완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부지불식간 놓침으로써 훌륭한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를 학도들 스스로 잃을 수 있음을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에 있었던 프로그램들은 사회과학 논문의 양대 포맷(format)이라고 할 수 있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방법론에 입각한 논문 작성법에 대한 강연들이었다. 사범대 교육학과 조용환 교수님께서 '질적 연구 논문 작성법'에



'질적 연구 논문 작성법'을 강연하고 있는 교육학과의 조용환 교수.

대해 강연해 주셨는데 강연자의 의욕에 비해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 준비해 오신 유인물의 내용을 모두 다 들을 수 없었던 것은 무척 아쉬웠다. 그러나 이 강연에서 비록 나무(세부 내용)들을 세세히 보기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질적 연구 논문 작성법 전반이라는 숲을 조망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 모두에게 매우 유익하였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강연 중 질적 글쓰기의 주요 지침과 질적 연구 논문을 평가하는 일반적 기준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이었고 특히 전자와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천 명 독자를 만족시키려는 글은 한 명 독자도 만족시키기 어렵지만, 한 명 독자를 이해시킬 수 있는 글은 천 명 독자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말씀은 글을 쓰는 지금까지 생생하게 남아 있다.

사회과학 논문 작성법 워크숍의 마지막 순서였던 사회대 언론정보학과 양승목 교수님의 '양적 연구 논문 작성법'에 대한 강연은 필자가 박사과정에 들어 온 이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방법론에 입각한 글쓰기에 관련한 것이었던 탓에 필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연구 절차, 좋은 논문이 되기 위한 요건, 연구 문제 선정 시 고려 사항과 관련한 강연자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그동안 경험했던 필자의 시행착오를 연상시키는 교수님의 언급이 있을 때마다 나와 같은 경험을 연구자라면 대부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던 한편으로 교수님의 지적들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필자의 학위 논문 작성 작업에 있어 예상되는 크고 작은 일련의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를 줄이는 데 매우 유용한 지침이 되

는 것들임을 느낄 수 있었다. 가령, 교수님께서 해 주신 연구 문제를 선정함에 있어 고려 사항으로 연구자의 능력과 지도 교수의 능력을 염두에 두라는 말씀은 필자 개인적으로 지난 7월 말 논문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과 교수님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였던 문제였던 까닭에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논문 쓰기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주었던 것 같다.

“학문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선 수많은 굽주림과 밤샘, 현기증과 누추함, 그리고 소화불량을 경험하여야만 한다(세르반테스)”는 명언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학자가 되기 위한 첫 관문인 학위논문 쓰기는 분명 쉽지 않은 학문적 여정임이 분명하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에서 주최한 <인문·사회 계열 대학원생을 위한 학위논문 작성법 워크숍>은 학위논문의 완성을 당면 목표로 하고 있는 해당 학문의 학생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하고 소중한 프로그램이었다. 학제 간 연구가 활발해지는 추세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동일한 워크숍으로 묶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 또

한 인상적이었다. 논문 작성과 관련한 강의들이 학과 차원에서 개설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교수개발센터 글쓰기교실의 <학위 논문 작성법 워크숍>은 높이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워크숍 프로그램의 내용이 지니는 중요성과 학문을 미래의 천직으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다고 예상되는 학생들의 규모에 비해 참가자의 수가 적었던 것은 ‘옥의 티’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보가 부족했다기보다는 홍보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인다. 해당 학과들과 연계된 홍보 방식이었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 싶다. 본 워크숍을 위해 기울였을 주최 측의 노력이 앞으로는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의 열띤 호응으로 이어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감히 고언(苦言)해 본다. 끝으로 본 워크숍이 마치 영국 민화 『잭과 콩나무(Jack and the Beanstalk)』의 그 콩나무처럼 필자가 논문을 완성하는 데 있어 희망의 ‘콩나무’를 발견하게 해 준 추억의 시간으로 훗날 기억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